

‘우라쿠의 생애’

오다 우라쿠의 생애

오다 나가마스(織田長益)는 1547 년에 오다 노부히데(織田信秀, 1511-1549)의 11 번째 아들로 오와리국(현재의 아이치현 서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출가를 하고부터 '우라쿠'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라쿠의 형인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는 후에 천하통일을 꿈꾼 3 대 무장 중 최초의 1 인으로 도쿠가와 막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지배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라쿠는 2 번째로 천하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 3 번째로 천하통일을 이룬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있는 무장과의 연결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라쿠는 무인보다는 문화인으로 더 알려져 있으며, 일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다인(茶人), 센리큐(千利休, 1522-1591)를 스승으로 모시고 다도를 배웠습니다. 격동의 시대였던 16 세기 말부터 17 세기 초에 걸쳐 우라쿠는 빈번하게 다회(茶會, 차모임)를 열어 여러 파의 화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후에 교토의 절에 은거한 우라쿠는 그곳에 그의 대표작인 다실 ‘조안(如庵)’을 지었습니다.

청년시절

우라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0 세였던 1567 년에 형 노부나가가 막 제압한 기후에서 노부나가와 합류했습니다. 1581 년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기후 땅을 찾아 수 백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확실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우라쿠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본어로 '조안'이라고 발음하는 'João'('John'의 포르투갈어)이 세례명이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 후에 우라쿠는 자신의 다실에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1582 년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우라쿠와 노부나가가 교토의 혼노지(本能寺)라는 절을 방문했을 때, 노부나가가 신하 중 한사람이었던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 1528-1582)에게 배신을 당해 그 세력들에게 혼노지 절을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노부나가는 포로가 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자결했습니다. 노부나가의 장남인 오다 노부타다(織田信忠, 1557-1582)는 아버지와 자결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라쿠의 조언에 따라 노부타다는 그 자리에서 할복했지만, 우라쿠 자신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회를 통한 조화 실현

노부나가가 살아있을 때 우라쿠는 오다 가문에 가르침을 주던 다인, 센리큐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몇 년 후 리큐가 도요토미 가문을 섬기게 되었을 무렵에 우라쿠는 다시 리큐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또, 어느 기록에는 우라쿠가 리큐

칠철(利休七哲, 센리큐의 제자 중에서 특히 우수했던 7인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우라쿠의 다도에 대한 탐구심은 당시와 같은 긴박한 정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라쿠는 16세기 후반 광범위한 평화활동의 일환으로 수많은 중요한 국면에서 조정역할로 다회에 참가했습니다. 1585년에는 노부나가의 옛 가신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노부나가의 차남이자 후계자인 오다 노부카쓰(1558-1630) 사이의 평화 교섭을 이끌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라쿠는 히데요시와 히데요시의 전 측근이자 조언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다회에 참가했고, 1586년에는 이 둘 사이의 평화협정을 성사시켰습니다.

대립하는 충성심

1598년 히데요시가 세상을 뜨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후계자, 가신들과 싸움을 시작했고,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쇼군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라쿠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에야스측 무장으로 활약했는데, 그 공적으로 넓은 영지를 받았습니다.

히데요시의 측실인 요도도노(淀殿, 1567-1615)와 그의 어린 아들인 히데요리(秀頼, 1593-1615)를 제외하고 이에야스는 1614년까지 히데요시파의 잔당을 제압했습니다. 요도도노와 히데요리는 오사카성에 머물며, 지원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요도도노의 숙부인 우라쿠는 여러 차례 요도도노에게 이에야스와의 화해를 중용했으나, 적대관계가 이어지자 화가 난 우라쿠는 1615년 초에 오사카를 떠났습니다. 그해 6월 이에야스의 공격으로 성은 함락되었고, 요도도노와 히데요리는 자결했습니다.

은거

오사카에서의 일에 낙담해서인지 같은 해 우라쿠는 교토에 은거했습니다. 1617년에는 겐닌지 절과 협상하여 노후화된 배전 하나를 재건해 은거처로 하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1618년에는 새로 완성한 쇼텐인(正伝院, 정전원)이라는 이름의 사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3년 후에 우라쿠는 75세의 나이로 타계했고, 저택 부지에 묻혔습니다.

우라쿠가 남긴 것

우라쿠의 후계자와 제자들은 '우라쿠류'라고 불리는 차의 유파를 계승했는데, 그 전통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2년 3월 23일에는 우라쿠류의 제 15대 종가(어느 일족, 일문에서 적통 가계)인 오다 나가시게(織田長繁, 1918-1992)가 우라쿠엔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우라쿠가 자노유(손님을 초대해 말차를 대접하며 즐기는 것. 다도의 의의에 가깝지만, '차를 즐긴다'는 것을 더 중시한다. 또는 그러한 모임)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진심을 담아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손님이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라쿠는 다인들이 대가의 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 없이 모방하는 것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우라쿠의 주체성은 스승의 가르침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 가르침을 반영한 ‘조안(如庵)’의 디자인에 나타나 있습니다.